

광주·전남 내진 보강 안된 민간건축물 ‘지진 취약’

광주 23.2%·전남 10.4%

학교 건물 내진설계 70% 그쳐

전문가 “호남권 안전지대 아냐”

노후아파트·산단 등 큰 피해 우려

광주·전남지역 학교와 민간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에서 올해 최대인 4.8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광주·전남도 대규모 지진 발생권에 들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전남 학교시설 가운데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이 30%에 달한다. 민간 건물 대부분은 지진위험에 노출돼 있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전북 부안군 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각 23건씩의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역민이 지진 공포를 경험했다.

전문가들은 호남지역에도 활성 단층들이 존재하는 만큼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 확인된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최대 6.0규모의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호남도 마찬가지다. 호남권에 단층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앞으로 충분히 대규모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엔 해남에서 한 달 동안 미소 지진(규모 2.0 미만의 지진)까지 포함해 75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것도 전문가들의 분석의 이유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하 20km 중소 단층들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신동훈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또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혹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말고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이 이뤄진 건축물 비율은 각각 23.2%, 10.6%에 불과하다.



지진 두려움에 운동장 피신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전주시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교실을 빠져나와 운동장에 모여 있다. <전북도교육청 제공>

광주지역 내 내진설계 대상 건물(11만6927동) 중 23.2%(2만7235동)만 내진보강이 이뤄졌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은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이다.

광주 공공기관 건축물의 내진율은 82.3%(1024동 중 834동)에 달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22.8%(11만5903동 중 2만6401동)에 그쳤다. 내진율은 보강이 완료된 비율이다.

전남은 54만 195동의 내진설계 대상 중 5만 7189동만이 내진보강이 완료됐다. 전남 공공기관은 51.6%(2339동 중 1208동)의 내진율을 기록했지만, 민간 건축물은 10.4%(53만3905동 중 5만 5981동)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건축물의 내진율은 꾸준히 높고있는 반면, 법령 강화 이전 지어진 건축물들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다 내진보강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20%미만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까지 견폐율이나 용적을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기준 광주시에는 총 1260단지, 45만

629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중 지어진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아파트는 673단지, 21만 1945세대로 광주 지역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해당된다. 광주·전남 학교의 내진성능 확보도 시급하다. 광주의 학교건물은 총 1606동이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912동이다. 이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75.9%(693동) 뿐이다. 나머지 219동의 건물 중 철거를 앞둔 26동의 학교건물을 제외한 193동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전남에서는 총 8129동의 학교건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3493동이며 이중 69.83%(2439동)이 내진설계를 완료했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전남 지역 학교건물은 1054동에 달한다.

또한 1983-1991년 준공된 하남산단과 1995-2010년 준공된 평동산단 등 노후 산단의 경우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현재 산단 내진율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되어있지 않다”면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동시에 정부에서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기업에 저이자 대출 등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조현병이면 다인가요? 제발 처벌해 주세요”

영광 노점상 흥기 피습 아내 “다친 남편 항암치료도 못해” 절규

“조현병이면 그럴수 있으나. 판사님 제발 처벌해 주세요.”

12일 오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선 피해자의 가족 A씨가 절규했다.

이날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B씨는 지난해 5월 영광군 영광읍 터미널시장 인근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C(64)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의 아내이다.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던 B씨는 장사를 준비하는 C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괴롭히고 오해해 수십차례 흥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청객에 앉아 있던 A씨는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낸 A씨에게 C씨의 상태를 물었다. 마이크를 잡은 A씨는 연신 손을 떨며 딸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는 “남편이 병원에서 최근 퇴원했지만, 건강이 더 안좋아 지고 있다”고 울먹였다.

A씨는 “남편이 한 달을 채 못버틸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다”면서 “남편 없이 혼자 절대 살수 없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아내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차도

가 없자 표적치료를 시작해 회복세를 보이던 중 변을 당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의사들이 남편에게 흥기에 걸린 치료와 항암치료를 동시에 할수 없다고 해 결국 항암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남편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상태”라면서 “퇴원했지만 병세가 더 악화돼 몸무게는 40kg밖에 안나가고 허약해져 누워만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피해자 지원으로 치료비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는 A씨는 “돈은 필요 없다. 제발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흥기에 그렇게 무참히 찌를수 있냐”면서 “제발 처벌해달라”고 통곡했다.

이날 B씨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진행 내내 B씨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재판부가 “C씨와 일면식도 없느냐”, “범죄사실이 기억나느냐”, “범죄를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전부 “네”라고 대답했다.

B씨의 다음 재판은 7월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전건설사 남양건설도 법정관리 신청

지역 건설업계 위기감 고조

한국건설에 이어 지역 중전건설사인 남양건설도 법원에 법인회생신청(법정관리)을 해 지역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남양건설 주식회사가 전날 광주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파산1-1부(부장판사 조영범)에 신청사건을 배당했다.

남양건설은 회생을 시작하기 전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인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남양건설이 회생신청서에 제출한 부채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114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이 떨어지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회사의 채권 회수와 자산 처분 절차가 동결된다.

이후 법원 판단을 거쳐 회생 작업에 들어가거나 파산 절차를 밟는다.

광주·전남지역은 건설업계의 비중이 높고 업체간 서로 얽어 있다는 점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정 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다른 업체까지 악영향이 미치는 ‘도미노 현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자재비 인상과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아 전문성이 떨어져 공기가 연장되는 등의 이유로 건설업계는 악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남양건설이 회생을 신청한 배경으로 전남·경남 지역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적자가 난 상황에서 광주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아파트 신축 현장 2곳에서 대금 수백억원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양건설이 법인 파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건설이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지 않았고 남은 공사를 마무리 할 경우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남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27위의 중전건설사로 지난 1958년 설립돼 지난 2010년 한 차례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6년 자력으로 회복하기도 했고 현재 남양건설 대표이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리모델링 현장 홀로 야간작업 60대 숨진 채 발견

광주 도심 상가 리모델링 현장에서 야간에 홀로 일하던 6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실내에서 A(62)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의 지인이 현장을 확인하다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상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철거 작업 요청을 받아 소규모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족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전날 밤 야간 작업을 한다고 말하고 현장에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